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07.(제 5호)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

이선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출산·양육 행복지표 개발 연구(2023)

서울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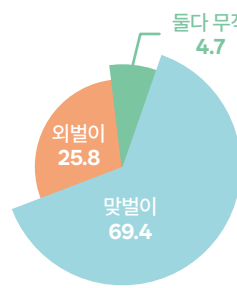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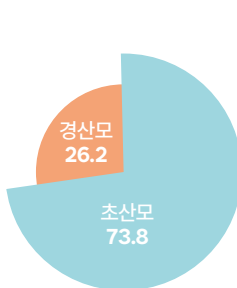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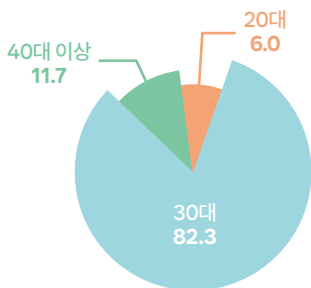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개발 연구(2022)

산후조리(産後調理)의 사전적 의미는 “출산 후에 허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피는 일”이며, 보건의료학적으로 출산 후 6주간 신체 회복과 산후진찰이 이루어지는 산후 관리를 뜻한다. 산후조리 기간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보니 산후조리 정책에서 산모의 건강지원 정책은 신생아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양육자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출산 이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출산 이후 총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50만 원, 산모 건강 지원을 위한 운동, 약품 구매 등에 50만 원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2023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이용한 산모를 대상으로 사업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서울시 산후조리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용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 조사 대상: 2023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산모 1,543명
- ▶ 조사 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2023년 4월
- ▶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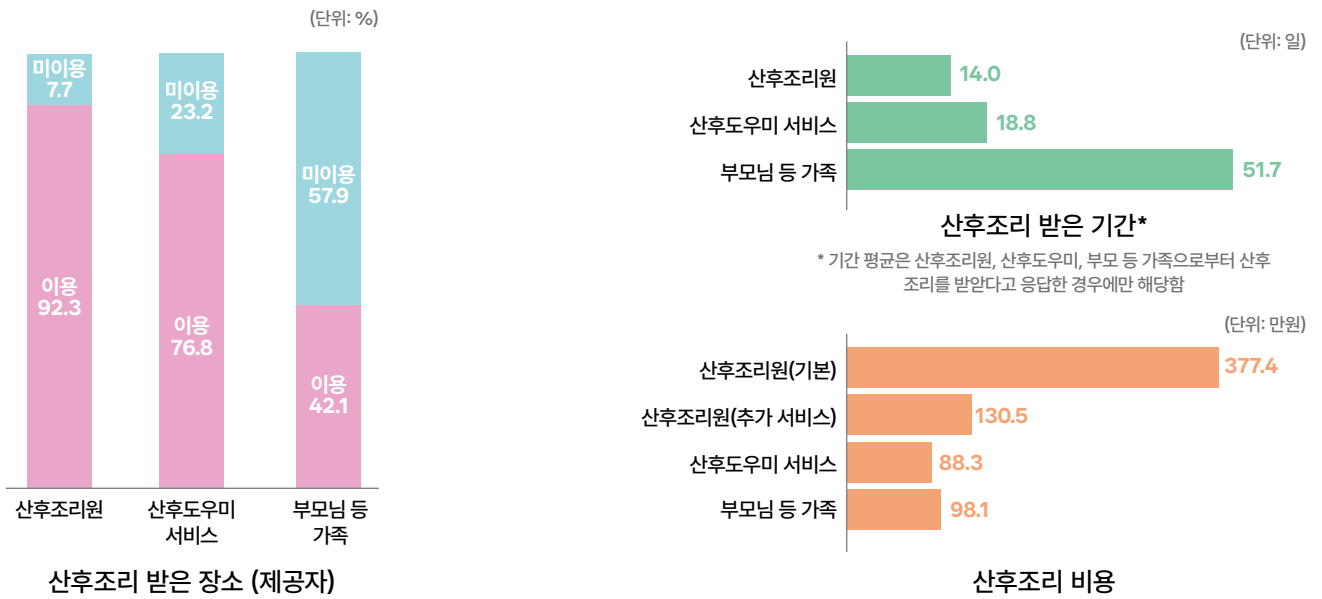
(단위: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4년 수행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이선형·이수연, 2024)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 실태

### ○ 산후조리 장소, 기간, 비용

- (장소) 산후조리원 이용률 92.3%, 산후도우미 서비스 76.8%, 가족 도움 42.1%로 나타남.
-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평균 약 14일,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18.8일,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 51.7일로 나타남.
- (비용) 산후조리원 기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평균 비용이 377.4만 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평균 88.3만 원,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 평균 98.1만 원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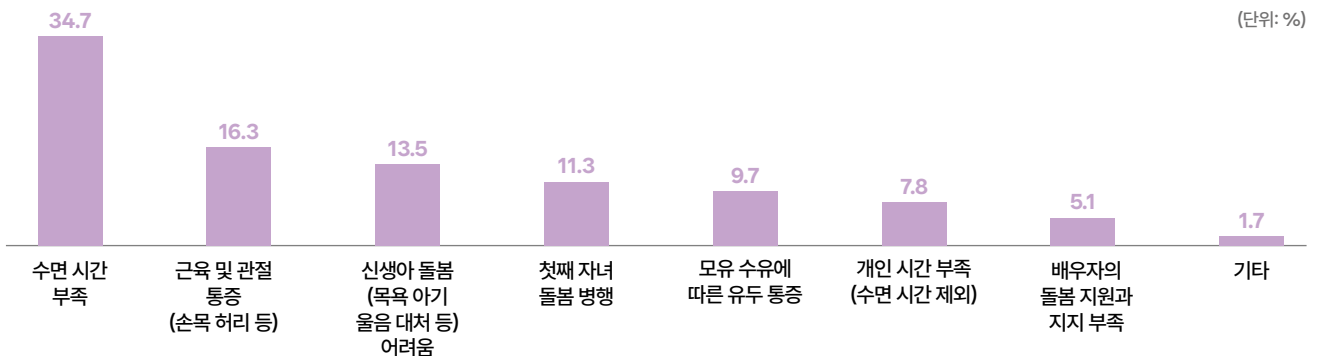


|그림 1| 산후조리 받은 장소, 기간, 비용

## 산후조리 기간 산모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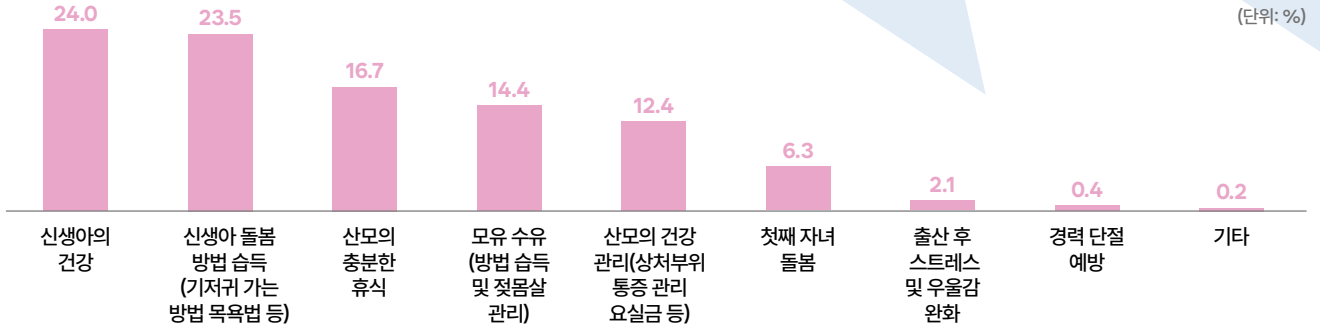
### ○ 산모 건강은 신생아 돌봄에 비해 신경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 기간 어려움은 '수면시간 부족'(34.7%) > '근육 및 관절 통증'(16.3%) > '신생아 돌봄'(13.5%) 등으로 산모의 건강 관련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산후조리 기간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신생아의 건강'(24.0%) > '신생아 돌봄'(23.5%) > '산모 휴식'(16.7%) 등 신생아 돌봄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산후조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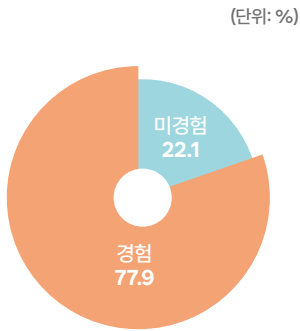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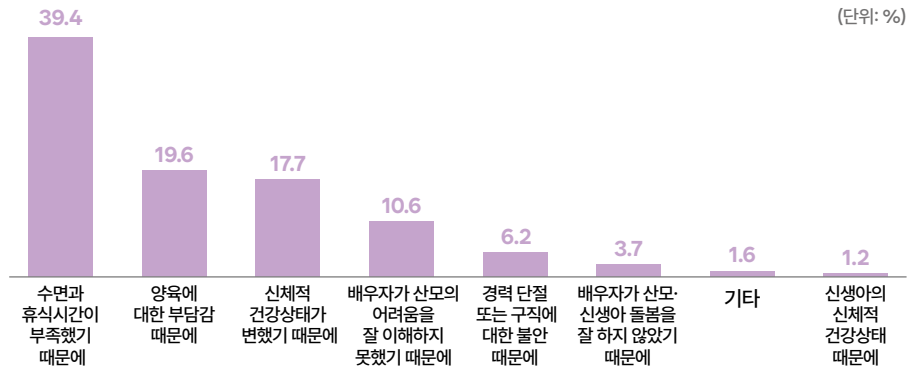
|그림 3| 산후조리 주안점

### ○ 산후 우울감 경험을 높아 마음 건강 지원 필요

- 출산 후 1년 사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7.9%로 나타난 가운데, 산후 우울감을 느낀 요인에 대해서는 '수면·휴식 시간 부족'(39.4%), '양육에 대한 부담감'(19.6%) 등을 높게 응답하였음.



|그림 4| 산후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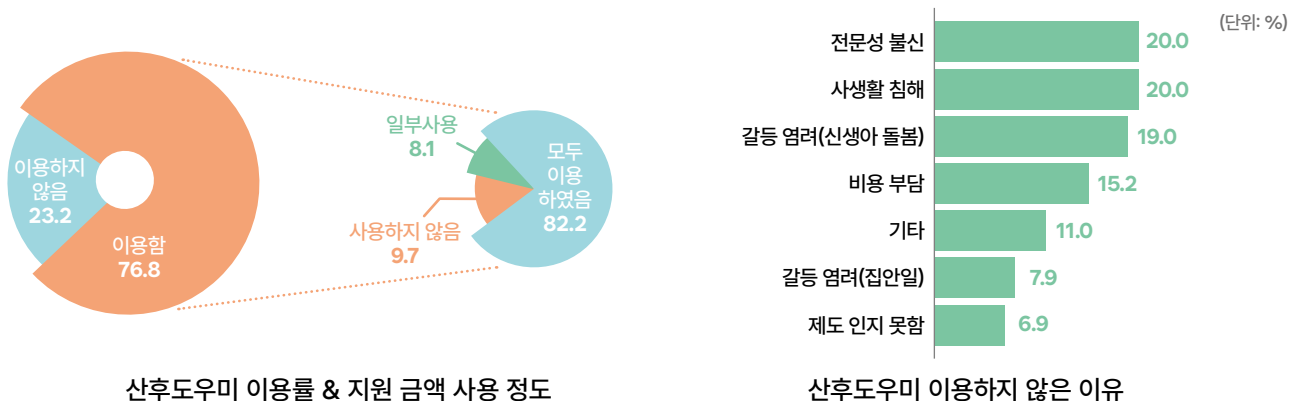


|그림 5| 산후우울감 요인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이용 실태 및 효과

### ○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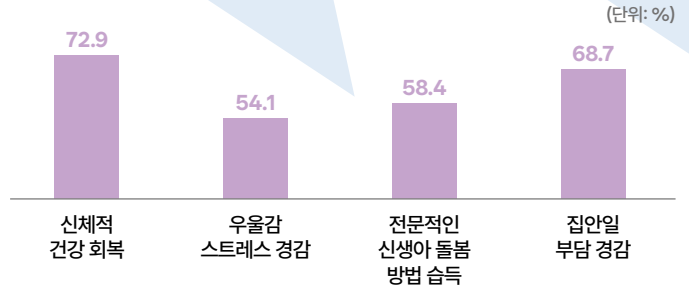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중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76.8%로 나타남. 조사 시점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는 산후도우미 전문성 불신(20.0%), 사생활 침해(20.0%) 등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6| 산후도우미 이용률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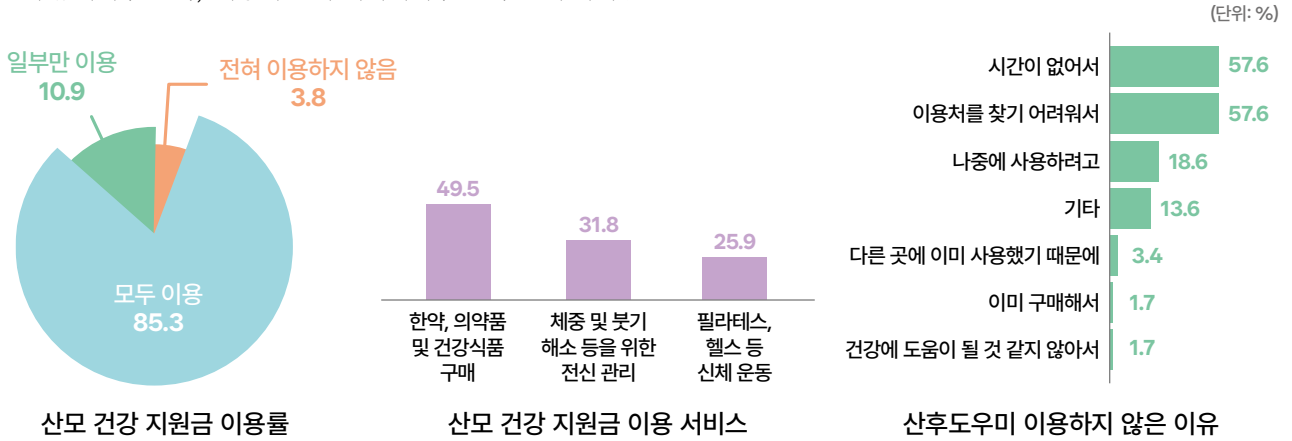
-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은 서비스 이용 후에 신체적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응답에 72.9%, 집안일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에 68.7%, 전문적인 신생아 돌봄 방법을 습득하는 데 58.4%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7|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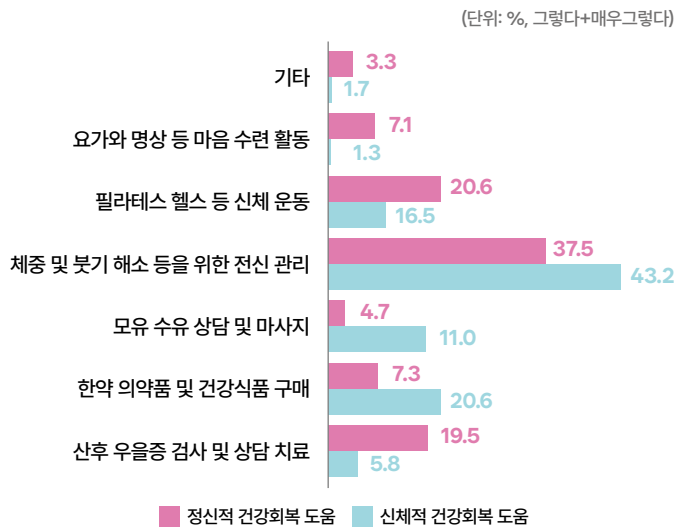
### ○ 산모 건강 지원금 이용 실태 및 효과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중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산모 건강 지원금을 모두 이용했다는 응답은 85.3%로 나타났으며, 이용처는 ‘한약·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이용이 49.5%로 가장 높았음. 조사 시점에서 산모 건강 지원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57.6%), ‘이용처 찾기 어려워’(57.6%) 등이 나타남.



|그림 8| 산모 건강 지원금 이용률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신체적 건강 회복에 효과적이었던 서비스는 ‘체중 및 붓기 해소 등을 위한 전신 관리’(43.2%), ‘한약·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20.6%), ‘필라테스 헬스 등 신체운동’(1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신적 건강 회복에 효과적이었던 서비스는 ‘체중 및 붓기 해소 등을 위한 전신 관리’(37.5%), ‘필라테스 헬스 등 신체운동’(20.6%),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치료’(1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체중 및 붓기 해소 등을 위한 전신 관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에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그림 9| 산모 건강 지원금 효과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운용 방식 개선 필요

### ○ 전반적 만족도는 높지만 바우처 종류 구분 및 이용 제한 개선 요구 나타남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업에 대다수는 만족하는 가운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7%로 전체 응답자 1,543명 중 149명으로 나타났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바우처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불만족 사유로 선택한 경우가 43.0%(64명), 바우처 이용 서비스 제한을 선택한 경우가 33.6%(50명), 바우처 금액 부족이 11.4%(16명)로 나타남. 바우처 운용 방식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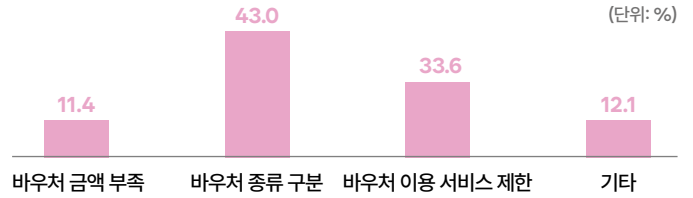


그림 10 | 불만족 사유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종류 구분 개선

- 바우처 종류 구분 제도 개선을 2가지 안으로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바우처 이용처 구분 없애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안에 대해서 83.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2종 구분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54%가 동의함.

표 11 | 바우처 이용처 구분 개선(안)

| 구분 | 현재           | 변경(동의 정도)                                  |                                |
|----|--------------|--|--------------------------------|
|    |              | 1안(83.9%)                                  | 2안(54.0%)                      |
| 종류 | 2종 구분        | 2종 구분 없음                                   | 2종 구분 유지                       |
| 금액 | 각각 50만 원씩 구분 | 종류별 최소 사용 금액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종류별 최소 사용 금액 이외에 자유롭게 사용       |
|    |              | 예시: 산후도우미만 100만 원 또는 건강지원금으로만 100만 원 사용 가능 | 예시: 산후도우미 10만 원, 건강지원금 90만 원 등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 기한 개선

-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현재 사용 기한인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타남. 이에 바우처 사용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2 | 바우처 이용처 사용 기한 개선(안)

| 구분    | 현재                                     | 변경(안)                     |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 출산일로부터 60일(동일)            |
| 사용 기한 | [산후도우미] 출산일로부터 60일<br>[산모 건강지원] 6개월 이내 | [바우처 종류 상관 없이] 출산 후 1년 이내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이용처 신규 발굴: '서울 산모 영양식 배달 쿠폰'

-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돌봄과 가사를 전담하는 산모의 경우 본인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이에 관내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하여 산모의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및 배달서비스와 협력하여 '서울 산모 영양식 배달 쿠폰'을 발급하고 이를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함.

표 3 | 바우처 이용처 확대(안)

| 구분       | 현재               | 변경(안)  |
|----------|------------------|--|
| 산모 식사 지원 | 외식 및 배달 음식 사용 불가 | 양질의 산모 식사 제공 방안 마련: 자치구 식당+배달서비스 협력하여 '서울 산모 영양식 배달 쿠폰' 제공 |

## 서울시 산모의 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 임신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임신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산후우울증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 있음. 2024년 1월 「모자보건법」 산후우울증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 ○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추가

- 조례 개정과 더불어 산후조리기간 임신부 및 배우자에 대한 산후우울증 상담 및 교육 사업 추가 필요함. 「산후조리실태조사」(2021)에서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5.9%로 가장 높지만,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산모 돌봄 참여도는 5점 만점에 3.73점으로 신생아 돌봄(4.0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향후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증제’ 등의 도입을 통해 산후도우미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함.
-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도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초구에서는 산후도우미 업무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에게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함. 이용자 측면에서도 민원 발생,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강관리사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 산후조리원 공공성 강화

-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 및 선호도 볼 때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기적으로 산후조리 시설로서 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산후조리 정책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설로서 산후조리원이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아닌 ‘산모 건강’ 지원으로 정책 목적을 강조한 사업 명칭 변경 고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최초 인지 시 ‘산모 건강 지원 사업으로 이해’(57.6%)한 경우보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으로 이해’(85.0%) 했다는 응답이 높음. 이에 ‘서울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1안), ‘서울형 산후조리 건강 지원 사업’(2안), ‘서울형 산후조리 산모 건강 지원 사업’(3안) 등의 명칭을 제안함.